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김도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백종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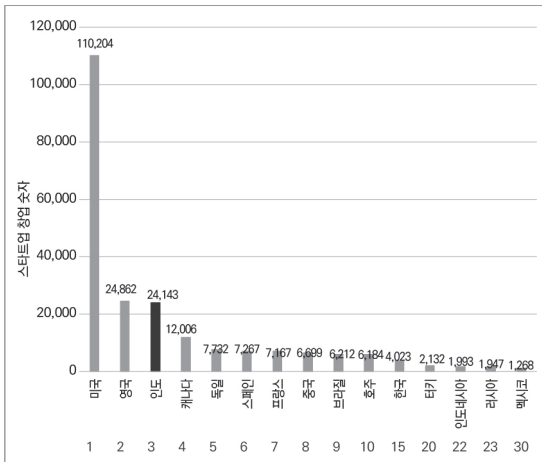
- ▶ 세계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인도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 중임.
 -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주도 중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
 - 최근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 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
 - 빠르게 발전 중인 인도 스타트업 시장 내 한국기업의 저조한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스타트업 창업 및 운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
- ▶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수와 투자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해외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음.
 -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가, 투자, 지식 인프라, 인적자본,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 중이며, 이러한 생태계는 도시별 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남.
 - 인도의 창업가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장 및 성공사례를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펀딩 시스템과,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성장한 국내외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조성 중이며, 혁신, 연구개발,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지원하는 지식 인프라와 공과대학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 풀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책도 최근 수년간 다각적으로 시행됨.
 - 벵갈루루는 공학 중심, 델리는 주요 기관 및 비즈니스 중심, 뭄바이는 상업 금융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발전 중임.
- ▶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인도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및 금융 지원제도 활용 경험이 없고,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함.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
- ▶ 인도 스타트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신남방정책 및 한·인도 디지털 협력 강화와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 및 진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를 통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한·인도 지식문화교류센터 설립과 한·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통하여 한·인도 상호 인식 격차 해소와 한·인도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 달성이 예상되며,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구축 등 실질적 정책 과제를 제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인도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 중
 - 스타트업은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창립된 성장을 지향하는 젊은 기업 혹은 조직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
 -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주도 중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
 - 스타트업은 자본과 인력의 빠른 재배치가 가능하여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보이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고용 증가에 영향
 -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전 세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
 - 최근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 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
 -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 추세는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대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 3위의 스타트업 창업 국가로 평가됨.
 - 2018년 인도 스타트업은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비중의 5.4%로 미국(58.5%)과 중국(16.2%)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고,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4위에 위치

그림 1. 국가별 스타트업 창업 수(201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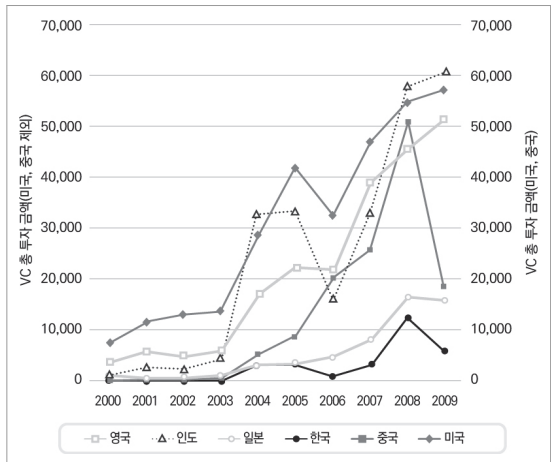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Crunch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국별 스타트업 투자금액 추이(201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runch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빠르게 발전 중인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한국 포함 주요국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한국 스타트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음.
- 한국기업의 저조한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스타트업 창업 및 운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
 -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스타트업 연구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기업을 둘러싼 여러 생태계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함.
 -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책, 금융, 문화, 인력, 시장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됨.
- 본 연구는 미시적,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국의 스타트업 환경 비교·분석을 통하여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위치 파악
 - 창업가, 투자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 정책 등 인도 스타트업의 생태계 요소를 국가 단위와 도시 수준에서 분석
 -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애로점 등을 청취하여 정책 수요를 파악

2. 조사 및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투자 정보가 포함된 크런치베이스(Crunchbase)임.
 - 크런치베이스는 3,000개 이상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일 스타트업 투자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받고, 500,000명이 넘는 기업인, 창업가,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스타트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이를 데이터화함.
 - 2020년 5월 18일 벌크 데이터 기준 총 210개 국가의 1,028,712개 기업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10년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1) 주요국의 스타트업 환경

① 스타트업 창업 및 엑시트 추세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인도 6개국의 스타트업 창업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스타트업의 감소는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인구학적 문제(인구 감소 등),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

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

-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 수는 2015년 이후 영국을 상회
- 중국은 2014~15년 약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등장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한국과 일본은 약 100~500개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등장하는 추세

● **주요국의 스타트업 창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반**

- 인도는 전자상거래, 마케팅 산업 스타트업의 창업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 인터넷 서비스 산업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고, 일본은 미디어와 오락 산업, 중국은 금융서비스, 영국, 미국, 인도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 스타트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중국, 영국, 일본은 수도 서울, 베이징,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며, 인도와 미국은 수도가 아닌 벵갈루루와 뉴욕이 창업의 중심지임.**

- 인도와 미국의 창업도시 허판달 지수는 각각 748과 266이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도시 집중도가 낮아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양한 도시에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 **최근 10년간 엑시트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이에 대비 인도와 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비중은 상당히 낮음.**

- 미국 표본기업의 약 6.8%가 인수 및 합병을 중심으로 엑시트에 성공하였으나, 인도와 한국의 엑시트 기업 비중은 각각 2.6%와 1.4%로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모습

② **창업가**

● **주요국의 스타트업 창업가의 대부분은 자국 출신 중심이고, 특히 인도의 경우 자국 창업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 중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창업가와 CEO가 활동하는 시장이고,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은 본국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평가
 - 특히 인도의 경우 자국 창업가의 비중이 6개국 중 가장 높으며, 약 95%를 차지함.

●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영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의 여성 스타트업 창업률은 높지만, 아시아 국가의 여성 창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국과 한국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가의 비중이 높지만, 일본과 미국의 창업가는 다수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함.

- 중국 스타트업 창업가의 약 84.5%, 한국 스타트업 창업가의 약 84.2%가 창업 경험이 없이 스타트업 시장에 참여하지만, 이에 대비 약 40%의 일본과 미국의 창업가는 창업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함.

③ 투자

- 지난 10년간 주요국의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는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인도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 중임.

- 인도의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2018년 이후 영국을 넘어섰는데, 특히 인도 스타트업 투자금액의 상승 폭이 투자 건수보다 크게 높아, 일부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의미함.

- 주요국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 형태와 접근성은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중국 스타트업의 약 99%의 투자가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인도 스타트업의 약 24%의 투자가 개인을 통해 이루어져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모습을 보임.

- 영국, 인도, 미국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자본의 접근이 수월하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며, 중국 스타트업은 전체 투자 대비 초기창업 투자금액 비중이 매우 낮아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창업 초기 자금의 활용도가 낮은 편

- 한국 스타트업은 초기창업 투자와 시리즈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사모펀드 등의 비시리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독특한 모습을 가짐.

- 주요국 스타트업은 대부분 시리즈 초기 투자인 시리즈 A와 B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한국, 영국, 미국의 스타트업은 시리즈 A와 B의 투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우 시리즈 C 이후의 투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시장성이 확보된 스타트업으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2)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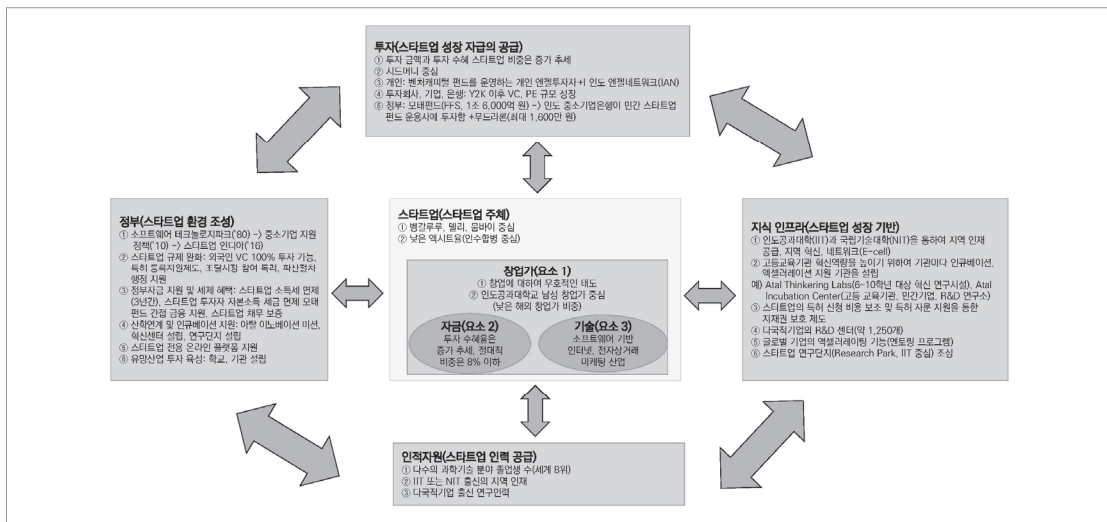
① 구성주체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창업가 △투자 환경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정부 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창업가] 인도 스타트업 창업가의 주요 특성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인도공과대학교 출신 중심의 창업 문화를 꼽을 수 있음.

- 특히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과 जुगद्ध(Jugad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됨.
- **[투자]**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 확대와 더불어 개인, 민간, 정부 등 다양한 투자 주체로부터의 투자접근성 개선이 인도 스타트업 투자환경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됨.
 - 인도는 타 국가와 비교해 엔젤 투자자와 자국의 벤처캐피털(VC) 및 사모펀드(PE) 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무드라론과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인 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음.
-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원]** 인도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등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 및 우수한 인력 풀을 구축해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 중 상당수를 배출하는 인도공과대학(IIT)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연구문화를 통해 인도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다년간 시행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16년부터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전담조직(Startup India Hub)을 신설해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멘토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임.

그림 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 저자 작성.

②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벵갈루루

- 벵갈루루는 IT 및 공학 중심의 미래 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림.
 - 벵갈루루에서 2010~19년 기간 창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4,373개로 뭄바이(2,707개)와 델리(3,495개)를 상회
- 벵갈루루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MNC) 수의 30% 이상이 벵갈루루에 밀집되어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 △ 공과대학 내 인큐베이터 조성·첨단 기술 중심의 K-Tech 허브를 구축해 연관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제도 등임.
- 스타트업 사례인 줌카(ZoomCar)는 셀프 드라이브(self-drive) 렌터카라는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도입한 스타트업으로, 교통 인프라 부족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한 창업 사례로 평가

● 델리

- 델리는 인도 수도가 위치해 정부기관 및 주요 인프라의 접근성이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 IIT 델리, 델리대학 등 우수한 인력을 지속 양성하는 지식 인프라와 더불어 델리 이노베이션 허브 및 델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조성, 제작실험실 지원 등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핀테크 스타트업인 폰페(PhonePe) 창업사례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가 돋보이는 스타트업 사례로 평가됨.

● 뭄바이

- 인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 꼽히는 뭄바이는 상업과 금융업이 매우 발달해 인도의 경제 수도로 불리며, 핀테크, 전자상거래 및 IT 등이 주요 스타트업 분야임.
- 뭄바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 우수한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 및 인큐베이터 환경 조성 △ 주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 있음.
- 페이센스(PaySense) 창업사례는 금융서비스 관련 수요증가를 효과적으로 예측해 뭄바이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많은 고객을 단기간에 확보한 창업 사례로 꼽히며, 인텔리전스노드(Intelligence Node)는 최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소매기업에 최적화된 상품 판매 전략을 제공한 사례로 주목할 만함.

표 1.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구분		벵갈루루(카르나타카)	델리	뭄바이(마하라슈트라)
기초정보	도시특징	- 전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이 발달 - 인도의 실리콘밸리 -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는 도시	- 수도 뉴델리가 위치해 주요 기관 접근성 우수 · 상업 및 주거 관련 인프라 우수 - 도시 기준(2014) 세계 둘째로 많은 인구 보유	- 중앙은행(RBI), 뭄바이 증권거래소 등 인도의 경제 핵심기능이 집중 - 핵심 항구가 위치해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달
	인구	8,495,492명	16,439,831명	12,442,373명
스타트업 현황	창업기업 수	4,373개	3,495개	2,707개
	주요 창업 분야	데이터 분석, 하드웨어	디자인, 교육	금융서비스
	주요 기업	Inmobi, FlipKart 등	PhonePe, Hike 등	PharmEasy, InCred 등
	주요 창업 분야(해외)	디자인, 교육, 모바일	디자인, 교육	금융서비스
	주요 기업(해외)	Livspace, Varthana 등	Nayi Disha Studios, Dost Education 등	Happy, Intelligence Node 등
해외 창업가	해외순위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영국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UAE(중국 8위)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영국(홍콩 6위)
투자	인도 전체 투자 비중	22.7%	6.6%	29.7%
	(금액 기준)	국내 58.1%, 해외 32.9%	국내 62.3%, 해외 36.7%	국내 63.4%, 해외 36.6%
	(건수 기준)	국내 32.1%, 해외 67.9%	국내 32.1%, 해외 67.9%	국내 39.7%, 해외 60.3%
	주요 해외 투자국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아시아) 홍콩(5), 일본(6), 중국(8)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아시아) 홍콩(5), 일본(6)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아시아) 홍콩(5), 일본(7)
	투자업종(국내 투자자)	데이터 분석, 금융서비스, 과학 및 공학, 하드웨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식음료, 여행	상업 및 쇼핑, 모바일
	투자업종(해외 투자자)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상업 및 쇼핑, 식음료,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금융서비스, 대출 및 투자
지식 인프라	주요 특징	- 인도 도시 기준 최다 대학, 과학 분야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R&D 센터 - 인도과학원 SID, 인도정보기술대학원 혁신센터	- 인도 델리공과대학, 델리대학교, 델리공대 - 인도 최초로 여성 창업 프로그램(WEE) 운영	- IIT 뭄바이의 SINE 및 E-Cell - 뭄바이 핀테크 허브
정부 정책	주요 스타트업 정부 정책	- 카르나타카 i4 정책 - 카르나타카 스타트업(2015~2020) 정책 - KIA(Karnataka Innovation Authority)	- 2019년 스타트업 정책 프로그램(Start-up Policy for NCT of Delhi)	-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정책 2018 - 마하라슈트라 핀테크 정책 2018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정리.

3)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및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① 인도 진출 스타트업 현황

- 인도에 진출한 또는 진출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
 -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였거나 국내 법인 없이 2010년 이후 인도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현황, 인도 진출의 목적,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함.
- 인도 현지에 법인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의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도 현지에 법인을 운영 중인 18개 기업에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 각각 6개, 교육 서비스업 4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콘텐츠, 생산재 및 소비재 관련 비중이 높음.
 - 투자 단계상으로 시리즈 A에 해당하는 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창업가의 평균 나이는 39.94세, 대졸학력 보유자가 12명으로 66.7% 비중
 - 인도 진출 준비기간은 평균 7.39개월이며 인도 진출의 전략적인 동기로는 신속하게 인도시장을 선점하거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매출을 높이려는 목적이 두드러짐.
 - 응답 기업들은 주로 벵갈루루에 진출하였는데 이는 벵갈루루가 IT 산업의 중심지로 고급인력이 많고 스타트업 발전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임.

②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 인도 현지에 법인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 스타트업(18개)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창업가,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전문인력, 정부 지원 등)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
 - [창업가] 인도 현지 창업가와 공동 창업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4건, 합작회사를 고려 중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한 반면, 단독 창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7건으로 나타남.
 - 현지 창업가와 공동 창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성 결여, 현지 파트너가 없거나 현지 사정을 모름, 현지 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이 있음.
 - [금융 환경] 인도 현지로부터 인도 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본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은 18개 기업 중 1개에 불과하며 스타트업 모태펀드, 정부 신용보증이나 소득세 면제 등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지원정책을 활용해본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
 - [전문인력] 전체 인력의 일부를 인도 현지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도 현지의 연구개발센터나 엑셀러레이터와의 교류 경험이 있는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인도정부의 지원]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은 인도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스타트업 전담조직이나 자기인증제도에 불과

③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 인도에 법인을 운영 중인 18개 스타트업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해 전문인력(3.1점), 지식 인프라(2.8점), 창업가(2.7점), 금융(2.4점), 정부 지원(2.2점)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 창업가 항목은 ‘보통’과 ‘열악하다’는 평가가 각각 8건과 7건으로 나타났고, 금융 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평가가 9건으로 나타남.
 - 지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경우 ‘열악하다’는 평가가 6건씩 나왔으나 ‘우수하다’는 평가도 각각 6건과 7건 확인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중 정부 지원 항목에 대해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 수가 가장 많음.

표 2.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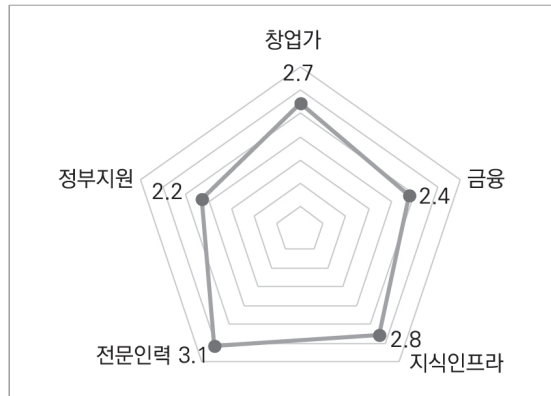
(단위: 응답 건수)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창업가	1	7	8	0	2
금융	3	9	3	2	1
지식 인프라	2	6	4	6	-
전문인력	1	6	3	7	1
정부 지원	5	6	6	1	-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단위: 점)



주: 매우 열악 1점, 열악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을 부여하여 각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점수화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것으로 판단.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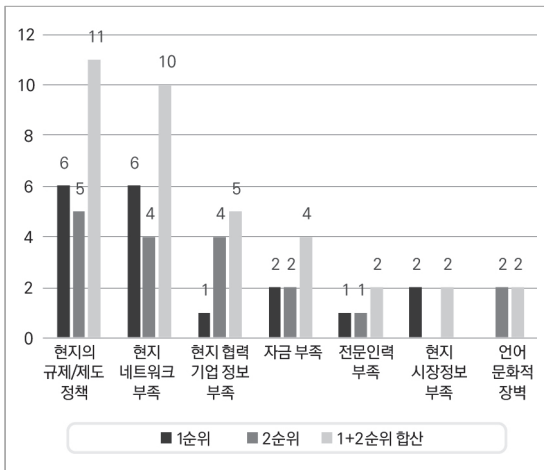
④ 인도 스타트업 진출 지원정책 수요

- 인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응답 기업은 인도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11건)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10건) 문제를 지적
 - 그 외에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파악됨.

- 응답기업의 60% 이상이 인도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해외 마케팅 비용 및 교육 지원, 해외 특허·지재권·시험 취득 지원 등을 활용함.
 - 지원제도를 활용했던 기업은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금액이 충분하다는 점과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해당 제도나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다고 평가
-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제도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인도 시장에 대한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과 인도 진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
 - 지원제도나 프로그램이 단발적으로 운영되며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 현지 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
- 성공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이 있음.
 - 그 외에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컨설팅, 사무실 및 주거공간, 해외 특허·지재권·시험 취득,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법인 설립비용,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인큐베이팅 참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그림 5. 인도 진출의 애로사항

(단위: 응답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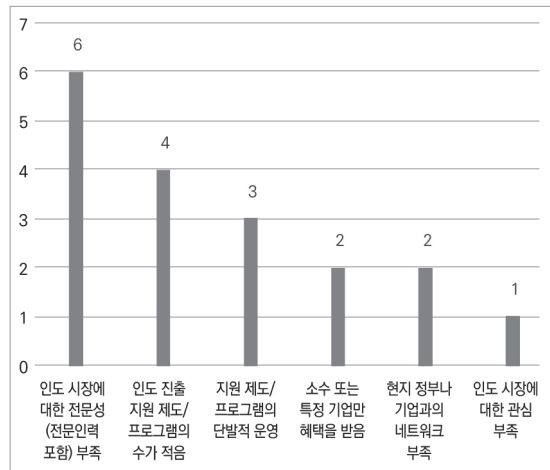


주: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제도 개선점

(단위: 응답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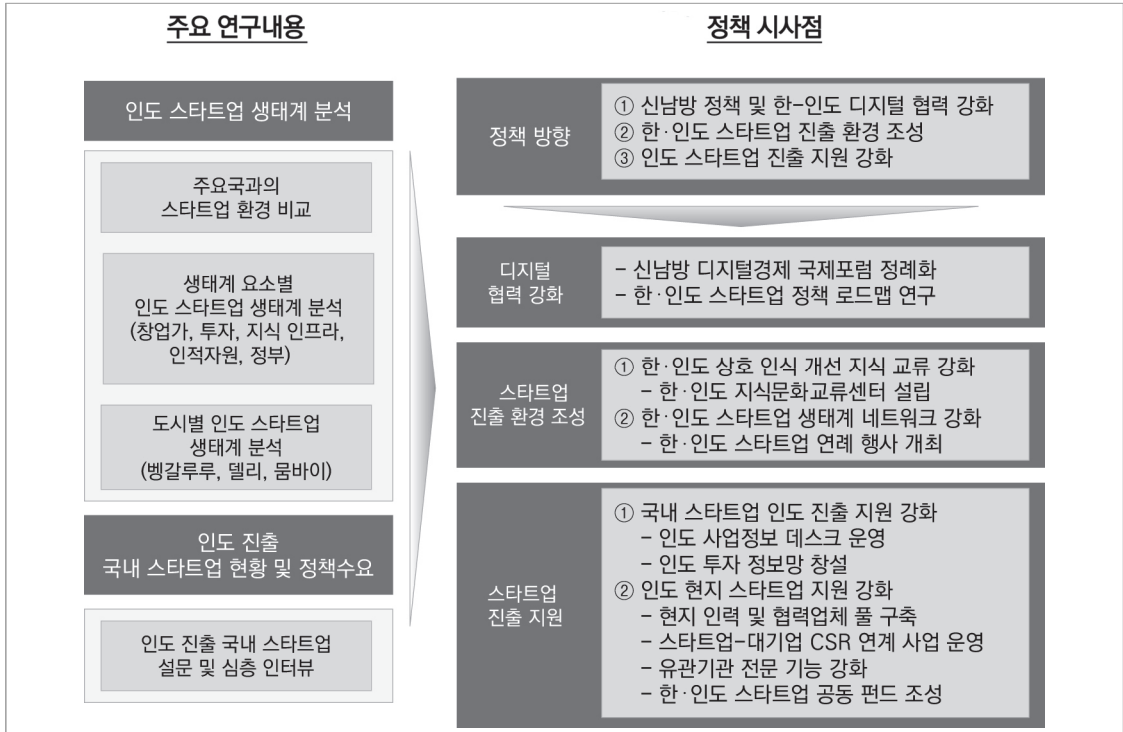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스타트업 지원정책 방향과 필요 과제는 아래와 같음.

그림 7.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양자간 협의에서 디지털 협력 논의 확대 필요

- 최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인도와의 디지털 협력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이거나 한국의 신남방정책 디지털 협력은 현재까지 아세안 중심으로 평가됨.
 - EU의 경우 2015년 Digital India Roundtable을 통해 통신 보안 등 ICT 분야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EU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도 활용
- 현재 정부의 지역협력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신남방정책 및 그 외 인도와의 양자 협력 논의에서 특히 디지털 분야의 협력 확대·심화가 필요함.

- 스타트업에 특화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간 디지털 산업, 경제 교류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협력이 반드시 동반
 - 2019년 아세안 및 인도와의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경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신남방지역 빅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도 진행하였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와 5G, 스타트업, 콘텐츠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양국간 교류의 확대 및 정례화가 필요함.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과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불균형 해소와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

● 한·인도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① 한·인도 지식문화교류센터

- 한·인도 상호인식 개선 및 지식교류 강화를 위하여 한·인도 지식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제안
 - 문화교류는 1973년 수교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경제적 교류에 비해서는 미흡함.
 - 인도 지식, 문화 교류는 한국과 인도 시장에 대한 양국의 관심 수준을 높이며,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시장 진출의 밑거름으로 작용
- 한·인도 지식문화교류센터는 사람, 정보 교류 기능을 가지며, 한·인도 학술 및 기술 교류 증진이 목표
 - 국내 스타트업 측면에서 한·인도 지식문화교류센터의 한·인도 학술, 기술 교류는 현지 진출에 필요한 인도 내 스타트업 창업 동향 파악과 인력 및 인프라 활용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② 한·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

- 인도 현지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 생태계 네트워크 협력이 요구되며,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창업가, VC, 기업,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한·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제안
 -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평가됨.
 - 국내 스타트업은 인도 현지에서 공동창업자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인력, 지식 인프라, 현지 사업 수요 등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 한·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는 창업가, 투자자, 인큐베이터, 정부 관계자, 학생 등 한·인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 발표 및 제품 출시 행사로 구성될 수 있음.

● 국내 및 인도 현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강화

①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인적 구조, 지식 인프라,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진출 희망 기업 또한 인도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함.
-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를 설치하여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인도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인도 현지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아 플러스 데스크'의 기능을 확장하여, 국내 주요 도시(서울, 판교, 대전, 부산 등)에 '인도 사업 정보 데스크'를 마련, 현지 시장 진출정보 제공 및 투자 정보 지원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

② 인도 투자 정보망 도입

-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인도 투자를 위한 정보망 도입을 제안함.
 - 코트라, KITA 등 현지 유관기관이 인도 스타트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망에 공유하며, 공유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전문 투자기관을 통하여,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M&A 추진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

그림 8. 인도 투자 정보망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③ 한·인도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 인도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투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하여 높아 해외 스타트업이 인도의 개인 및 기관 투자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임.
- 한·인도 스타트업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한 양국 스타트업의 자금 지원 강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한국과 인도 양국의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마련하여 양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 자금을 상호 제공하는 형태

④ 현지 및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전문 기능 강화

- 현지 세무 관련 법률, 노동 법규 등은 상시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만, 대다수의 국내 진출 스타트업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특히 현지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현지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해줄 인력이 충원된다면,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B2G)가 지원하는 K-Global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인도 전문인력으로 현지화하여 현지 지원기관(KOTRA 무역관, KITA 현지 사무소 등)에 도입 **KIEP**